

“친애하는 한강”... 가슴 뭉클해진 지역민들 ‘축하’

광주-전남 곳곳서 축하행사 이어져
소설 ‘소년이 온다’ 동호, AI 복원
강 시장 “전 세계에 오월 광주 알려”
김 지사 “민주·평화 희망의 등불”

11일 자정 45분께. 스웨덴 한림원 중신 회원 엘렌 맛소가 나와 3분여에 걸쳐 노벨 문학상 시상식에 앞서 한강 작가의 작품을 소개했다.

엘렌 맛소는 “한강 작가의 작품은 역사 트라우마를 배경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탐구했다”면서 “작품에서는 두개의 색이 만난다. 흰색과 빨간색이다. 이는 슬픔과 죽음, 삶과 고통을 상징하는데 이를 통해 작가는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그 답변을 찾을수는 없지만 외면해서는 안되는 질문이다”고 설명했다.

엘렌 맛소는 소년이 온다에 대해서는 “절대로 과거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작가는 말한다. 소년은 “나를 왜 죽였냐”고 묻는다”면서 “우리는 이를 잊어서도 안되고, 잊을 수도 없다”고 높게 평가했다.

뒤이어 그녀가 “친애하는 한강”이라고 호명하자 그 순간, 광주시청 시민홀에는 시민들의 함성과 박수로 가득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한강 작가에게 기립박수를 보낸 것이다.

이날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11일 오전 1시까지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하는 여러 행사를 진행했다. 시작은 10일 오후 7시45분 시청 행정동 앞 잔디광장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시민,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축하조형물 점등식으로부터 출발



강기정 광주시장이 11일 오전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기념 시민 축하행사’에 참석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자 환호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했다. 기념물은 행정동 앞 높이 12m, 길이 49m 크기의 아치형 구조물인 ‘빛고를 무지개’에 광다이오드(LED)로 조명을 설치하고, 전면부에는 광주 출신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는 포토존을 조성했다. 축하조형물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문학평론가 신형철 서울대학교 교수가 광주시청에서 ‘사적 애도와 공적 애도-‘소년이 온다’와 애도 문학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신 교수는 “애도 문학의 역할이란 사건

을 왜곡하거나 피해자를 혐오하는 시민사회의 분열을 애도 정치의 주제로 통합하는 것이다”며 “누군가는 왜곡과 폄훼로 열린 5·18을 통합해야 했고, ‘소년이 온다’가 그 역할을 했다. ‘소년이 온다’는 한강 작가의 뛰어난 역량에 광주가 가진 정서와 힘이 결합했으며, 애도 문학의 역할을 잘 해냈다”고 말했다.

신 교수의 강의 이후에는 스웨덴에서 진행되는 11일 새벽 1시까지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광주에서 온 편지’를 주제로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기념 시민 축

하행사’가 열렸다.

재즈·샌드아트 등 다채로운 공연, 시민 300여명이 마음을 모으는 한강 작가에 축하편지 쓰기, AI로 복원된 ‘소년이 온다’의 ‘동호’의 축하인사 등 특별한 감동이 광주시를 가득 채웠다.

소설 속 동호의 모티브가 된 문재학 열사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날이니, 소설 속 ‘동호’의 이름과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그냥 소년 동호라고 불러주세요”라고 인사를 건네자 장내는 진중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동호는 “이렇게 다시 만날수 있는 것은 한강 작가 덕분”이라면서 “소년 동호는 ‘소년이 온다’는 책을 펼칠 때마다, 거기가 어디든 어느 시간이든 꼭 옵니다. 그럴 기회를 준 한강 작가에게 무척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책을 펼치는 순간 저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오월 광주의 기억과 함께 소년 동호는 꼭 돌아옵니다”라고 말을 맺었다. 해당 인사말은 김형중 인문도시광주위원회 위원장이 작성한 것이다.

한강 작가의 수상 직후 만난 시민들은 이날 시국을 걱정하면서도 “한강 작가가 전한 위로에 힘을 얻는다”고 했다.

한 시민은 “지금 대한민국은 눈물겨운 막막함으로 안개 속에 덮여있다. 독백처럼 읊조리는 당신의 글 속에서 희망을 찾는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쳐다보고, 빛을 보고, 희망을 보고,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이날 시민들과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한 강 시장은 “한강 작가는 인간의 극단적 잔혹함과 존엄성이 동시에 있는 곳이면 어디든 ‘광주’라는 보물창고가 된다고 이야기했다”며 “80년 광주에는 학살자 전두환, 주먹밥을 나누는 시민, 시민을 지킨 안병하 치안감이 있었다. 2024년 대한민국에는 국회를 짓밟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장한 군인을 맨몸으로 끌어안는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 앞에 저지른 군인들이 있다. 과거의 광주는 현재의 광주를 돕고 있다. 작가님이 들려주신 ‘소년이 온다’의 동호 이야기 덕분에이기도 하다”고 감사를 전했다. 노병호·오지현 기자

코레일 노사 교섭 타결... 오늘부터 정상 운행

철도노조 일주일만에 파업 철회
파업 노조원 오후 7시 업무 복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노조가 총파업 일주일만에 임금·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12일부터 광주-전남지역 열차 운행이 정상화된다.

철도노조와 국토교통부, 코레일은 이틀간 교섭 끝에 11일 오후 3시35분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수준인 2.5% 기본급 인상을 비롯해 성과급 지급률 개선, 231억 원 규모의 임금 체불 해결, 외주화 및 인력 감축 중단, 4조

2교대 근무 전환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사는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이틀에 걸친 교섭 끝에 기입금 인상과 성과급 및 체불임금 정상화, 4조 2교대 시행, 외주화 중단, 승진포인트제도 시행 등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철도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노사 잠정합의에 따라 철도노조 호남본부 2600여명 중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1400여명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전원 업무에 복귀한다.

파업으로 운영을 중단한 열차는 12일부터 운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호남선 열차운행률은 평상시 대비 호남선

62.1%, 전라선 64.5%로 각각 집계됐다.

KTX의 경우 호남선은 66.7%, 전라선 75%의 운행률을 기록했으며, 일반열차(ITX-무궁화)는 호남선 50%, 전라선 53.3%로 운행이 감축됐다.

철도노조 호남본부 관계자는 “총파업 철회로 이날 오후부터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가 시작된다”며 “12일부터 열차가 정상 운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성아 기자



무안에서 출발하는 색다른 해외여행, 이제는 무안에서 편하게 떠나자!

이 외의 상품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여행문의는 홀로당당으로~

문의/예약 : 1522-1901



도쿄/나리타 온천여행
24.12.02~25.03.26
매일 출발가능
★오후 출발★
1인 989,000원~
★날짜별 상이★



무안출발 씨엠립 관광
24.12.29~25.03.16
매주 목요일(3박 4일)
★오전출발★
매주 일요일(3박 5일)
★오후출발★



무안출발 방콕관광
24.12.08~25.03.23
매주 목요일(3박 5일)
★오후출발★
매주 일요일(4박 6일)
★오후출발★



도쿄/요코하마 여행
24.12.02~25.03.26
매일 출발가능
★오후 출발★
1인 969,000원~
★날짜별 상이★



무안출발 하노이 관광
24.12.15~25.03.26
매주 수요일(3박 4일)
★오전 출발★
매주 토요일(3박 5일)
★오후 출발★



무안출발 대만 관광
24.12.02~25.03.26
매일 출발가능
★오후 출발★ 3박 5일
1인 899,000원~
★날짜별 상이★